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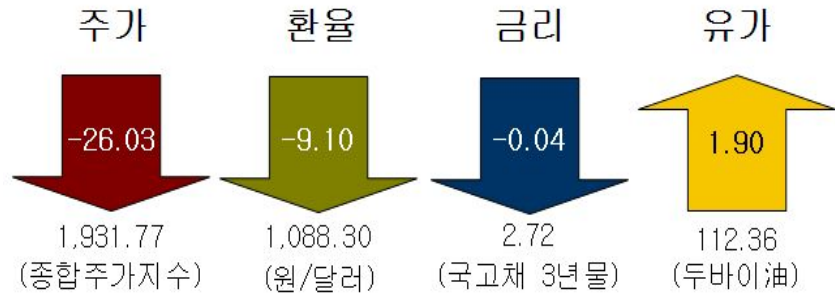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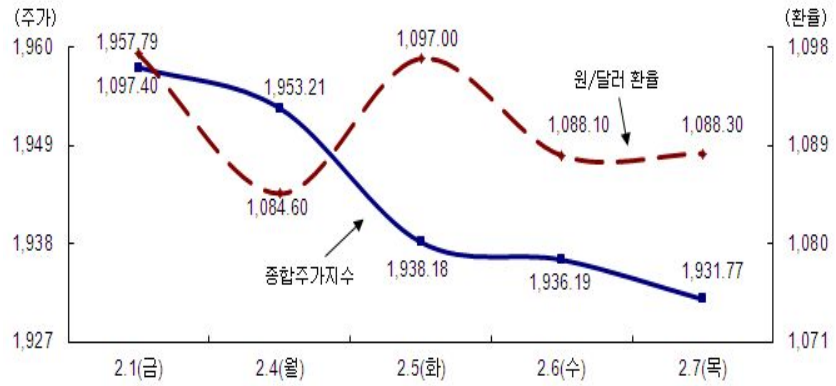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2.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9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 ■ 중국 과학기술 경쟁력 급상승

최근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IMD(2012)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8위, 45위에서 2012년 8위, 26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중 과학경쟁력 순위 격차는 지난 1997년 8계단에서 2012년 3계단으로 5계단 축소되었으며, 기술경쟁력 순위 격차도 같은 기간 17계단에서 12계단으로 5계단 축소되었다.

#### ■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한·중 간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부문으로 구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류해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상대적 지표는 중국이 한국보다 열위에 있으나, 매우 빠르게 개선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0년 현재 1.77%로 동기간 한국 3.74%의 절반 수준이나, 증가속도는 지난 15년간 중국이 한국보다 약 2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도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의 1/7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속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등 중간활동 지표에서도 중국이 한국보다 열위에 있으나, R&D 투자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 등 일부 성과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절대적 지표는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선속도도 한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규모는 2010년 현재 한국의 3배 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한국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수도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보다 5배 많은 수준이다. 더욱이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등 중간활동 지표에서는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의 각각 2배, 4배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하이테크산업 수출 등 성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 신성장동력이 될 10대 중점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최근 2년간 (2008-2010년) 7개 중점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다. 한국의 2005년 수준을 100으로 하여 한·중 간 과학기술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 지표에서는 2010년 현재 중국이 55로 한국 110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적 지표에서는 중국이 409로 한국 151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뿐 아니라, 경쟁력 수준도 한국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점

한·중 간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양적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R&D 투자 효율성 및 과학기술인재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차세대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로 중국의 미래기술 추격에 대응해야 한다.**

## 1. 중국 과학기술 경쟁력 급상승

○ 중국의 과학 및 기술경쟁력은 지난 약 15년간 각각 20, 19계단 상승, 한국과의 경쟁력 순위 격차를 각각 3, 12계단 차로 줄이면서 한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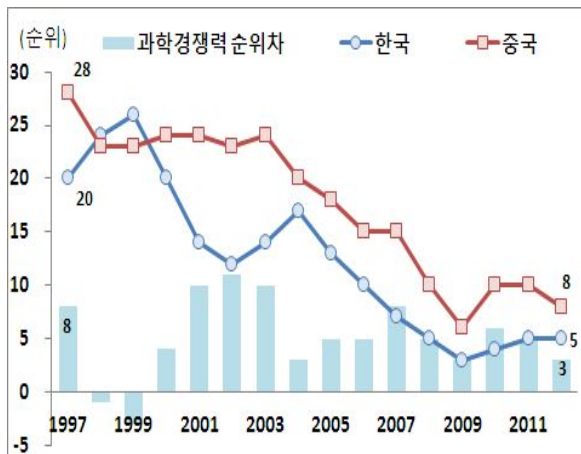
- 과학경쟁력은 지난 약 15년간 중국이 20계단 상승하며, 15계단 상승한 한국을 3계단 차로 위협

-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2012년 현재 5위로 지난 1997년 20위보다 15계단 상승
- 중국의 과학경쟁력은 지난 1997년 28위에서 2012년 8위로 20계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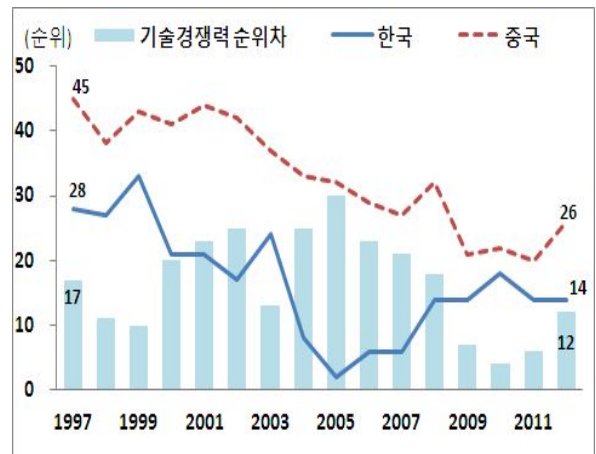
- 기술경쟁력도 지난 약 15년간 중국이 19계단 상승하며, 14계단 상승한 한국을 12계단 차로 대폭 축소

-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1997년 28위에서 2012년 14위로 도약하며, 지난 15년간 14계단 상승
- 중국은 지난 1997년 45위에서 2012년 26위로 상승, 지난 15년간 19계단 상승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17계단에서 12계단 차로 축소시킴

< 한·중 과학경쟁력 순위 비교 >



< 한·중 기술경쟁력 순위 비교 >



자료 : IMD.

주 1. 과학기술경쟁력은 수치가 낮을수록 경쟁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과학 경쟁력 지표는 총 23개 지표(정량 17개, 설문 6개), 기술경쟁력 지표 역시 총 23개 지표(정량 13개, 설문 10개)를 기준으로 산정.

## 2.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 1) 상대적 지표 :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

#### ① 상대적 지표의 투입은 중국이 열위를 보이나, 속도는 빠르게 증가

○ GDP 대비 R&D 투자 비중,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 등 상대적 투입 지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열위에 있으나, 개선 속도는 한국을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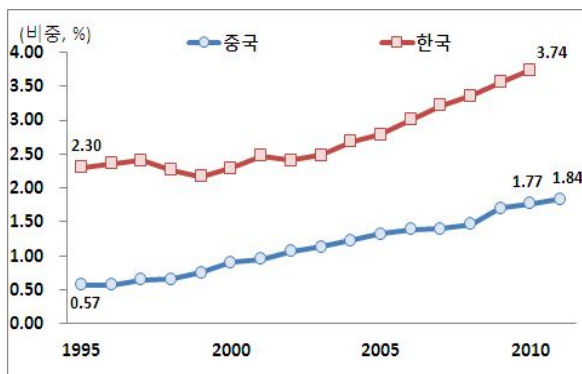
-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의 1/2 수준이나, 지난 15년간 한국의 2배 빠르게 증가

- 2010년 현재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1.77%로 한국 3.74%보다 1.96%p 낮으며, 지난 15년간 한·중 격차가 다소 증가
- 하지만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의 증가 속도는 중국이 지난 15년간 연평균 7.8%로 한국 3.3%보다 약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 더욱이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1년 1.84%로 지난 1995년 0.57%보다 약 3.2배 증가

- 한편,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도 2010년 중국이 한국의 1/7 수준이나, 지난 15년간 한국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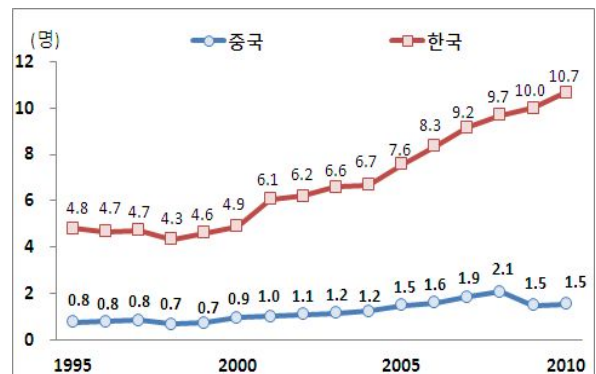
- 중국의 경활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는 1995년 0.8명에서 2010년 1.5명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2010년 한국 10.7명의 0.14% 수준에 그침
- 지난 15년간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중국은 49%로 한국 5.4%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
- 더욱이 중국과학기술통계에 따르면, 기업, 정부, 대학 등 주체별 연구 인력도 2009년 현재 한국보다 각각 4배, 12배, 6배 급증

< 한·중 R&D/GDP 비중 >



자료 : OECD, 中國科技統計.

< 한·중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 >



자료 : OECD.

주 : 상근인력(FTE; Full-Time Equivalent) 기준.

② 중간활동 지표도 중국이 열세이나, 일부 성과는 한국을 능가

○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등 중간활동 지표 역시 중국이 한국보다 열세이나 빠르게 증가

- 중국의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 32건으로 한국 64건의 절반이지만,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16% 증가하며, 빠르게 증가
- 연구원 1인당 SCI급 논문 발행 편수도 2010년 중국이 12편으로 한국 15편보다 열세이나,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11% 증가하며, 7% 증가한 한국을 위협
- 특히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액은 2010년 현재 중국이 500%로 한국 372%보다 약 1.3배 우위를 나타냄

<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  
(단위 : 건, 편, %)

시기	특허출원		논문	
	중국	한국	중국	한국
1995	3.6	78.1	2.5	5.9
2000	7.5	94.1	4.4	12.4
2005	15.5	89.5	6.1	15.5
2010	32.3	64.4	11.9	15.1
연평균 증가율 ('95-10)	15.8	-1.3	10.9	6.5

< 한·중 하이테크 산업 수출/R&D 투자 비중 >  
(단위 : %)

시기	중국	한국
1995	515	294
2000	515	518
2005	880	416
2010	500	372
연평균 증가율 ('95-10)	-0.2	1.6

자료 : OECD, 中國科技統計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 OECD, 中國科技產業統計年鑒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하이테크 산업은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제약, 항공기 등 상위기술과 전자기기, 철도 등 중상위 기술을 보유한 산업으로 정의됨.

○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 비중에서는 한국이 모두 우위를 보임

-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 비중은 2010년 현재 한국이 중국보다 11배 높음
- 또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6.6%로 중국보다 빠르게 증가

< 한·중 기술수출/R&D 투자 비중 추이 >

(단위 : %)

시기	2001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01-10)
중국	1.5	2.4	0.8	-7.0
한국	5.0	6.9	8.8	6.6

자료 : OECD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2) 절대적 지표 :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

① 절대적 지표의 투입은 중국이 한국을 압도, 속도도 빠르게 증가

○ R&D 투자 규모, 연구원수 등 절대적 투입 지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개선 속도는 한국과 유사하거나 압도

- R&D 투자 규모는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의 3배 수준이며, 속도도 지난 15년간 중국이 한국보다 3배 빠르게 증가

·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2010년 약 380억 달러로 지난 1995년 122억 달러에 비해 3배 상승한 반면, 중국은 1995년 42억 달러에서 2010년 1,043억 달러로 25배 급증

· 특히, 중국의 R&D 투자 속도는 1995~2010년 동안 연평균 24%로, 동기간 한국 연평균 8%보다 3배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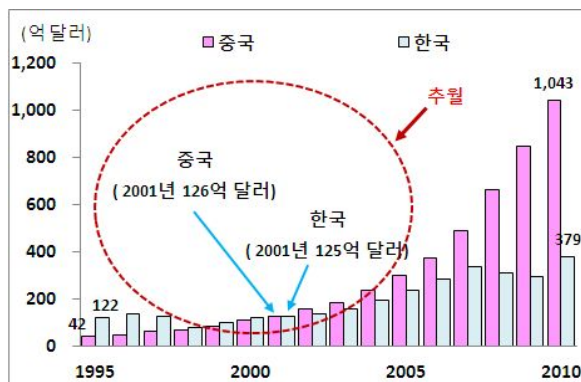
· 2010년 현재 중국 R&D 투자 규모는 1,043억 달러로 한국 380억 달러의 3배 수준

- 연구원수는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의 5배 수준이며, 속도도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중국의 총 연구원수는 지난 1995년 52만 명에서 2010년 121만 명으로 약 2.3배 증가, 2010년 현재 한국 연구원수 26만 명의 약 5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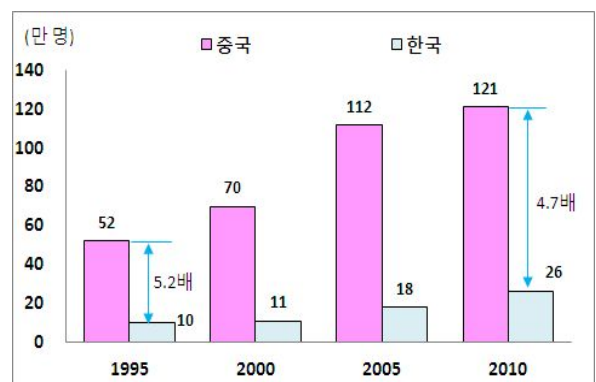
· 연구원수 속도는 지난 15년간 한국이 연평균 6.7%로 중국 5.8%과 비교해 유사한 증가 속도를 보임

< 한·중 R&D 투자 규모 >



자료 : OECD, 中國科技統計.

< 한·중 총 연구원수 >



자료 : OECD.

주 : 상근인력(FTE; Full-Time Equivalent) 기준.

② 중간활동 및 성과에서도 중국이 우위이며, 일부 성과는 한국을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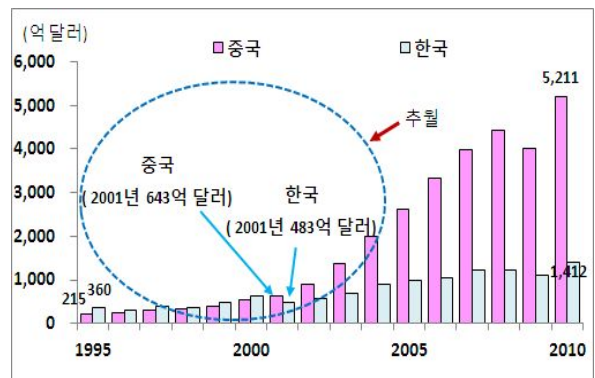
○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등 중간활동 지표는 중국이 우위

- 특허출원 건수에서 중국은 2010년 약 39만 건으로 한국 17만 건의 약 2배 수준이며, 속도도 지난 15년간 연평균 23% 증가하며, 5% 증가에 그친 한국을 압도
-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편수도 2010년 현재 중국이 14만 편으로 한국 4만 편의 약 4배에 이르며, 속도도 각각 17%, 14%로 중국이 능가
- 중국 하이테크산업 수출은 2010년 5,200억 달러로 한국 1,400억 달러의 약 4배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도 지난 15년간 한국의 2배 이상 속도로 증가

< 한·중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  
(단위 : 천 건, 천 편)

시기	특허		논문	
	중국	한국	중국	한국
1995	18.7	78.5	13.1	5.9
2000	51.9	102.0	30.5	13.5
2005	173.3	160.9	68.2	27.8
2010	391.2	170.1	143.8	39.8
연평균 증가율 ('95-10)	22.5	5.3	17.3	13.6

< 한·중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추이 >



자료 : 일본과학기술지표(2012), 中國科技統計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 OECD, 中國科技產業統計年鑒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기술수출 총액은 한국이 우위이나, 속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기술수출 총액은 2010년 현재 한국이 중국보다 4배 많음
- 다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이 18%로 한국 21%와 유사한 속도로 증가

< 한·중 기술수출 총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시기	2001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01-10)
중국	186	719	801	17.6
한국	619	1,625	3,345	20.6

자료 : OECD.



3) 차세대 중점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맹추격

- 중국은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등을 포함한 7대 중점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근 2년간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
  - 7대 중점과학기술 분야 가운데, 항공·우주·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최근 2년간(2008~2010년) 7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한국보다 기술경쟁력이 빠르게 상승
    -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 우주·항공·해양 등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 한국을 위협

< 7대 주요 중점과학기술의 분야별 한·중 기술 격차 비교 >

(단위 : 년)

구분	한국			중국		
	2010	2008	격차 축소(2008-2010)	2010	2008	격차 축소(2008-2010)
1. 전자·정보·통신	3.0	3.8	0.8	5.4	7.1	1.7
2. 의료	6.4	8.1	1.7	8.9	10.5	1.6
3. 바이오	5.6	7.3	1.7	7.8	9.8	2.0
4. 기계·제조·공정	4.8	6.1	1.3	8.1	9.5	1.4
5. 에너지·자원	5.8	6.6	0.8	8.2	9.1	0.9
6. 우주·항공·해양	7.1	7.4	0.3	7.1	8.4	1.3
7. 나노·소재	5.7	6.4	0.7	8.1	8.5	0.4

자료 : 국가 R&D 기술산업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상기 수치는 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년 단위로 산출한 값임.

- 더욱이 2010년 현재 총 283개 기술 분야 중 전체의 9%인 26개 분야는 이미 중국이 추월한 상태임

< 주요 7대 국내 중점과학기술 분야 중 중국에게 추월당한 기술(2010년 기준) >

구분	중국의 한국 추월 기술
전자·정보·통신(57개)	- 고성능컴퓨팅 활용, 가상 컴퓨팅 등 2개 기술
의료(45개)	- 한약제제 및 제형, 임상적용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체, 생체정보연계를 이용한 타겟 평가, 암진단 표지물질, 한의약 임상 및 비임상시험 등 5개 기술
바이오(45개)	- 생체정보 정보화, 생체정보 응용, 생체내 대사체 네트워크 규명, 유전자변형 생물 개발, 유전체 서열 고속해독 및 분석 등 5개 기술
기계·제조·공정(32개)	- 신탄수무기, 정밀타격무기, 감시정찰무기 등 3개 기술
에너지·자원(59개)	- 핵융합로 재료, 초고온 가스로, 해양 광물자원 개발, 극한지 지하 탐사개발, 석탄 가스화 액화 등 5개 기술
우주·항공·해양(30개)	- 고체 및 액체 추진기관, 우주비행선 통신 및 추적·자율항행, 위성항법시스템 설계, 인공위성 시스템 엔지니어링, 인공위성 서브시스템 등 5개 기술
나노·소재(15개 분야)	- 나노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b>총 283개 분야</b>	<b>26개 분야(전체의 9%)</b>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4) 과기 경쟁력 종합 평가

- 한국 과학기술 대비 중국 과학기술경쟁력 평가는 한국을 기준(2005=100)으로 투입, 중간활동, 성과 등 3가지 분야를 총 12개의 절대적, 상대적 지표로 나눠 비교함
  - 분석 지표는 절대적 지표와 상대적 지표로 구분해 비교
    - 절대적 지표는 투입에서 R&D 투자 규모, 연구원수 등 2가지 지표를, 중간활동과 성과측면에서는 각각 특허 출원수, SCI급 논문수 등과 하이테크산업 수출 및 기술 수출 지표를 비교
    - 상대적 지표는 투입에서 GDP 대비 R&D 투자 비중, 경활인구 천명당 연구원수 등 2가지 지표를, 중간활동과 성과측면에서는 각각 연구원 1인당 특허건수, 논문편수 등과 R&D 투자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 및 기술수출 비중 등으로 비교
- 한국 대비 중국 과학기술경쟁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중국이 한국보다 열위에 있으나, 절대규모 종합지수는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격차도 지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2010년 현재 중국이 55로 한국 110의 절반 수준에 있음
  - 하지만, 절대규모 종합지수는 중국이 409로 한국 151보다 과학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일뿐 아니라, 경쟁력 수준도 한국보다 빠르게 향상

< 한국 과학기술 대비 중국 과학기술경쟁력 종합지수 >

구분		절대적 지표				상대적 지표			
		투입 지수	중간활동 지수	성과 지수	절대규모 종합지수 (A)	투입 지수	중간활동 지수	성과 지수	상대규모 종합지수 (B)
중국	1995	154	29	22	68	15	10	124	50
	2000	216	71	57	115	22	18	124	55
	2005	374	177	156	236	33	28	123	61
	2010	558	380	290	409	42	56	66	55
한국	1995	54	35	37	42	73	63	71	69
	2000	56	56	65	59	73	93	125	97
	200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0	154	124	175	151	137	85	109	110

주 1. 한국(2005=100) 기준.  
 2. 각 지수는 구성 지표의 산술평균값을 의미.  
 3. 성과지수 중 기술수출 지표는 자료의 한계로 2005년부터 계산.

### 3. 시사점

- 핵심 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 과학기술경쟁력의 빠른 향상으로 향후 우리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의 빠른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열세 극복 필요
  - 중국의 R&D 투자, 하이테크산업 수출, 연구인력 등 양적 성장은 이미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개선 노력을 통한 선별적 우위 유지 필요
- 둘째, R&D 투자 효율성 및 과학기술 인재 활용 제고 노력 필요
  - R&D 지원 시스템 효율성 제고, 기존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지원 등 강화, 글로벌 상품 시장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전체 R&D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함
  - 해외 한국인 우수과학기술 인재 국내 회귀 및 활용 촉진, 국제간 학제 간 협력 R&D 활성화,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 셋째,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화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야 함
  - 최근,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중국의 추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 우주, 해양 등 거대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상태로 새로운 프론티어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기술선진국과의 전략적인 기술협력 관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1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	-0.2
일본	-0.6	-7.3	-2.8	10.4	0.3	2.0	5.7	-0.1	-3.5	-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2월 1일	2월 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02	1.96	-0.06%p
	엔/달러	77.66	79.37	85.86	91.81	93.61	1.80¥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586	1.3519	-0.0067\$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010	13,944	-66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1,191	11,357	16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76	2.72	-0.04%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97.4	1,088.3	-9.1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57.8	1,931.8	-2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2월 1일	2월 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7.68	95.78	-1.90\$
	Dubai	104.89	92.89	107.99	110.46	112.36	1.90\$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305.07	300.95	-4.1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3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10	175	285	27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30	5,481	5,845
		(증가율, %)	23.6	14.9	19.0	0.5	-3.0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68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